

## 제 18기 중견리더과정

#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 -세계공룡엑스포 중심으로 -

### 사 례 연 구 요 약

#### 사례연구요약

고성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축복의 땅이자 한려해상지역으로 동남과 서쪽이 바다에 접하고 바다 생물 상괭이를 비롯한 아직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미래이다. 특히 1982년 최초의 공룡화석지가 발견되어 초등학교 역사책에도 수록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한다. 2006년 세계공룡엑스포를 시작으로 2009. 2012. 2016. 네차례 공룡을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차기 공룡엑스포를 2020. 9월에 개최하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하였고 금년도 10월 개최 예정이다.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해 지역축제인 공룡엑스포 행사 무용론이 제기된바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새롭게 도출코자 한다.

**첫째** 지난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전체적인 공룡엑스포 보완 발전시키고 선진국가와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통해 향후 공룡세계엑스포 올바른 개최 방향을 모색하고,

**둘째** 인접한 통영·거제지역의 관광협력 파트너쉽으로 서로 윈-윈하는 관광객 유치전략을 꾀해 대한민국의 우수대표축제로 성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한다.

▶ 주제어:

## 목 차

I. 서론 .....	3
II. 현황 .....	4
1. 고성의 지역특성 .....	4
2. 지역축제의 기능 .....	4
3.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 현황 .....	7
4. 공룡엑스포 추진 현황 .....	9
5.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현황 .....	10
III. 문제점 .....	11
IV. 개선방안 .....	13
1. 군민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	13
2. 축제체험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	15
3. 지역자원 투어 프로그램 개발 .....	18
4. 공룡엑스포 운영방향 개선 .....	18
V. 결론 .....	19
〈참고문헌〉 .....	22

# I. 서론

1982년 1월 29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발자국화석에서 시작하여 2006년 4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사 엑스포가 개막된 이후 2009년, 2012년, 2016년 개최하였고 2020년해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로19로 연기되어 금년도에 개최될 예정이다.

공룡엑스포 개최는 경남 고성군은 과거의 역사성에 중심을 둔 ‘소가야 도입지 고성’에서 독특하고 차별화되어 브랜드화하기 좋은 ‘공룡나라 고성’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브랜드는 고성군의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한반도의 남부지역이고 경남의 중남부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과 남쪽일대는 바다에 접해있고, 서·북쪽은 육지인 반도지대로서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여 여름은 남동풍, 겨울에는 북서풍의 계절풍이 불어 온다.

겨울철 온도가 전국평균온도(15.5℃)가 17.5℃로 평균2.5℃ 높아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다.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이나, 문화예술과 연계, 휴가철 면지역 소규모 축제, 당항포관광지 해양레저관광, 수산물 가리비 축제를 위한 교통 접근성 문제, 먹거리, 즐길 거리, 관광홍보 등 다방면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조선·항공산업 추진등 신성장 동력사업을 확보하고 먹거리 공동연구개발 및 상품화 추진, 친환경 농업확산등 농림 수·축산업 육성과 고성송학동 고분 세계유산등재,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건립,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추진등 문화 관광 스포츠 마케팅을 위하여 부서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추진 운영 하여 문화관광전략이 종합적,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에 우리군의 기후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잘 살려 찾아오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은 하며 나아가 살고싶은 지역으로 재탄생하는 기회의 땅이 되기를 바라면 100만 이상(우리군 인구의 20배) 관광객이 찾는 공룡세계엑스포를 연계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자립모델이 되어 군민이 중심의 축제로 서로 힘을 합쳐 모두가 잘사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 코로나 19로 지친 사람들에게 고성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 II. 현황

### 1. 지역 특성

고성은 한반도 대륙의 남단에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중앙에 위치하며 소가야의 옛 도읍지로서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산과 바다와 들이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고성군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516.9km<sup>2</sup>, 1읍 13면의 행정 구역, 50,933명(남자25,551명/여자25,382명)이 거주하는 전통적 농·어업군으로서, 매년 감소되는 인구의 노령화, 저출산, 농어업 1차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도로망은 사통팔달로 마산과 통영 연결하는 국도14호선과 진주, 사천과 통영을 연결하는 국도 33호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4개시가 8km 평균차량으로 20분 이내 거리에 있고 서울과의 직접적인 거리는 250km내 3시간 거리에 있다.

- 지리적
  - 지맥은 동북에서 서남으로, 지세는 서북이 높고 동남이 기울은 편임
  - 하천은 군의 중심부에서 사방으로 흐름
  - 해안도서와 만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소하천변에 크고 작은 들이 조성되어 있는 농·어업의 적지입니다.
  - 고성의 상족암 군립공원의 해안절경으로 신기하고 이국적임
  - 자연경관이 아름다움
- 고유성
  -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자원이 있음
  - 생활문화, 역사문화가 깊음
  - 자연생태학적으로 고유함
- 경제적
  - 기반시설 및 인적자원 부족
  - 취약하고 다양하지 못한 경제구조
- 기후·계절 여향
  - 전통적인 기후로 겨울철 온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음(2.5℃)
  - 계절적 방문(관광) 격차 심함.
- 주요축제
  - 세계경남고성공룡엑스포(개최시기 3년주기 4~5월)
  - 고성가리비축제(매년 11월)
  - 촌스레 축제(매년 8월)

### 2. 지역축제의 역할과 기능

1991년 지방자치이후 지역축제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행사로

서 계획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모색되고 강조되어 왔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사업 발전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워낙 강해 위로부터 나누주기 제조업의 발전과 관광단지 위주의 개발 등 하드웨어 성격의 산업에 의존하였다. 지방자치 이후 단체장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강한 의지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차별화 전략, 그지역의 고유한 전통산업의 부활과 미래 먹거리 신규전략산업 육성, 지역축제 및 이벤트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부흥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어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FTA농산물 통상협상은 외국으로부터 싼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촌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어 지역축제는 농촌지역 활성화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왔다.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적극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며 성공사례는 선진 국가 및 타 자치단체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축제는 지역공동체 유지와 생산관계의 결속, 문화유산의 보전 이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현재는 지역홍보와 더불어 경제적 활성화 등 효과측면이 부각되고 있다(이충기·이진형·소학준, 2007). 지역축제의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와 관광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도로정비, 시설개선과 더불어 지역문화의 보존 및 개발등 환경적 효과측면등 긍정적 효과와 축제기간 중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과, 폐기물증가와 소음 등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 있는 분야는 해당 지역이 지역축제행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을 통해 농·특산물과 관광전략상품 개발과 판매와 관람객이 체류함으로써 식비, 숙박비, 차량 유류비등 방문객 지출효과와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지역상권의 매출 효과와 지역축제행사의 고용창출 등을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측면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인 효과로서 지역축제를 통해 문화향수를 느끼고 지역주민간의 문화교류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 한때 묶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회 속에서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감과 소속감을 지역주민들에게 불러 일으킴으로써 구성원 각자에게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여 지역 정체성형성에 기여한다(정근식, 1999)

지역축제는 지역의 특정한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 기존의 지역이미지를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고유한 개성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축제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고 문화관광 수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간지 매경 이코노미는 지역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지역축제 평가를 시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2004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3개의 축제가 있는데 특산품부문 공동1위는 금산 인삼축제와 보령 머드축제, 비특산품 부문에서 함평나비축제가 최우수로 뽑혔다.(매경이코노미, 2004)

<표 1> 최우수·우수 지역축제 : 특산품 부문

축제명	등급	전문가평가순위	1인당 지출액 순위
금산 인삼축제	최우수	1위(4회)	3위(76,631원)
보령 머드축제	최우수	2위(3회)	2위(89,453원)
강진 청자문화재	우수	3위(2회)	1위(93,087원)
영양 송이축제	우수	5위(1회)	4위(63,024원)
강경 젓갈축제	우수	5위(1회)	5위(54,186원)
경주한국의 술과떡잔치	우수	5위(1회)	6위(34,038원)

자료: 매경이코노미, 2004. 9. 29. 제1274호

고성은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고성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자연사 엑스포인 공룡을 테마파크와 상괭이 해양생태계 보고로서 도시민의 힐링과 관광공간으로서 중요한 대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 생명환경농업 전초기지조서 들판 등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미래세대의 교육공간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제7기 민선군수(백두현)이후 고성군과 거제·통영시 행정협의체를 조직운영하고 있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미진하나 거제·통영의 문화축제와 연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영·거제지역은 하절기 휴가지로서 많은 인파가 찾고 있고 관광인프라가 고성군보다 잘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광자원 또한 우수하다.

〈표 2〉 고성군 통영·거제시 주요 축제현황

지역명	축제명	개최시기	행사주기	주변시설
고성	고성공룡세계엑스포	4~5월	3~4년	송학고분군, 공룡박물관
	고성 가리비축제	11월	매년	
통영	통영 국제음악제	3~4월	매년	동피랑, 루지, 케이블카
	통영 연극예술축제	“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	“	
	통영한산대첩축제	8월	“	
	통영국제크라이애슬론대회	10~11월	“	
거제	거제 옥포대첩축제	6월	“	해금강, 외도, 장사도
	바다로세계로	7~8월		
	거제 섬꽃축제	10~11월		

자료: 해당시군 홈페이지

최근 코로나19로 대부분 행사가 연기 또는 중지되었으나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광 및 휴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의 해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욕구 증대, 힐링, 해양관광 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선호하는 등 관광의 활성화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3개시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며 함께 미래발전 지속가능한 관광 협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지역축제 방문객 소비지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0개(서울 한성백제문화제외)에 대하여 방문객 소비지출현황을 보면 방문객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축제는 무주반딧불축제(137,970원)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 및 네 번째로 소비지출이 많은 축제들이 순창장류축제(137,258원)와 김제 지평선축제(120,476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천 타포트락 페스티벌, 여름휴가철에 개최된 목포해양문화축제, 장흥 물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산청 한방·약초축제(108,335원)와 대구약령시축제(15,196원)가 한방 또는 약초라는 유사한 소재를 택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들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은 7배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 가. 연도별 비교현황

2014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56,460원으로써 최근 평균값에 비해 6%가량 증가하였다.

〈표 3〉 연도별 비교

(단위: 원)

년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2003	7,131	12,851	4,144	13,038	2,133	39,567
2004	7,514	15,267	4,603	15,151	2,644	45,179
2005	8,167	14,267	5,247	14,318	4,053	46,052
2006	9,542	15,382	5,056	14,886	4,108	48,974
2007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2012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2013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1
2014	11,1356	21,099	5,548	13,233	5,445	56,460
3년 평균	10,338	17,550	5,979	14,289	5,064	53,2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문화관광축제종합평가보고서

### 나. 항목별 비교현황

2014년도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전년도와 유사한 식음료비가 3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쇼핑비가 23.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년에 비해 숙박비와 식음료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류시간 증대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입장료 유료화로 인해 기타수입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쇼핑비와 유흥비는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상품·기념품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표 4〉 항목별 비교

	식음료비	쇼핑비	숙박비	유흥비	기타	합계
--	------	-----	-----	-----	----	----



금액(원)	21,099	13,233	11,135	5,548	5,445	56,460
구성비(%)	37.4%	23.4%	19.7%	9.8%	9.6%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문화관광축제종합평가보고서

#### 4. 고성공룡엑스포 추진현황

고성군이 공룡나라 고성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안가 공룡발자국 화석과 1982년 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화석의 중용성을 인식하고 학계와 소통하여 국내 최초로 공룡발자국 화석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2000년에 국내 최초로 공룡 콘텐츠 축제 공룡나라축제를 시작으로 2004년 국내 최초로 공룡 콘텐츠 축제 고성공룡나라축제를 처음 개최하고 같은해에 국내 최초로 공룡박물관을 개관하고 2005년에 챌린지고성공룡로봇 KOREA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공룡 콘텐츠 창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에 비로소 공룡을 메인 콘텐츠로 하는 국내 최초 자연사 엑스포인 2006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고성=공룡’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고성을 알릴 때에는 ‘공룡나라 고성’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공룡축제는 단순히 제의행사에 머물지 않고 브랜드가치를 더 높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으로 연결되고 또한 좋은 이미지의 브랜드는 농어촌으로 하는 지역생산성 증대에 지대한 영양을 끼친다. 공룡엑스포 이전에는 다수의 국민들은 고성하면 강원도 고성을 떠올리고 고성의 정체성을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나 2006. 2009. 2012. 2016. 네 번의 공룡엑스포를 통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 4> 엑스포 추진현황

구분	2006공룡엑스포	2009공룡엑스포	2012공룡엑스포	2106공룡엑스포
기간	52일 (2006. 4. 14. ~ 6. 4.)	73일 (2009. 3. 27. ~ 6. 7.)	73일 (2012. 3. 30. ~ 6. 10.)	73일 (2016. 4. 1. ~ 6. 12.)
주제	공룡과 지구 그리고 생명의 신비	놀라운 공룡세계, 상상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
경제적 파급효과	244,206백만원 (고용창출 7,585명)	280,062백만원 (고용창출 13,257명)	223,835백만원 (고용창출 1,280명)	85,606백만원 (고용창출)
관람객	1,540,007명 (외국인 42,087명)	1,706,748명 (외국인 75,836명)	1,789,671명 (외국인 90,210명)	1,520,899 (외국인 50,412명)

	구분	소계	시설비	운영비	소계	시설비	운영비	소계	시설비	운영비	소계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34,997	26,431	8,566	12,200	4,600	7,600	11,614	3,650	7,964	9,452	2,837	6,615
	국비	6,920	6,920		1,300	1,000	300	1,800	1,000	800	40		40
	도비	12,300	12,300		1,800	1,800		1,105	1,105				
	군비	15,777	7,211	8,556	9,100	1,800	7,300	8,709	1,545	7,164	9,052	2,837	6,215
	매출수입 (정산 전 수입)		8,365			11,906			11,7461			14,041	
	고성군 수입		7,200			10,000			10,000			10,064	

## 5.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 현황

고성군에서는 엑스포 행사 준비 단계부터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행·재정지원을 하고 각급 사회단체에서는 입장료 구입, 자원봉사자 지원과 군민들은 행사장내 식음시설 참가와 행사 도우미, 진행요원등 엑스포 종사자 고용등 일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4〉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기관별	추진사업	주요내용	비고
본청	행정지원단 운영 (전부서)	- 엑스포 입장권 판매 - 농산물 특별판매장 운영 - 고성읍 장날 특별 행사 - 행사장 운영 지역내 업체 선정 - 고성 공룡나라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환경개선사업(전읍면) -꽃길, 소공원, 도로변	- 엑스포 맞이 공공근로 고용증대	
엑스포조직위	상품권 지원	- 고성시장상품권, 고성사랑상품권(2종) 자영업 소득기여	
	고성군민 참여	- 행사장내 식음 시설 관내영업주 운영 - 행사진행요원 군민우선 고용창출	
단체	사회단체	- 행사기간내 자원봉사 활동	
	음식 및 숙박협회	- 입장권 소지 할인 관람객 유치	

### III. 문제점

공룡엑스포의 큰 성과는 작은 농어촌지역에서 군민의 힘을 모아 4회에 걸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룡나라 고성이라는 지역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수 있어 고성군 브랜드 상승에 대한 자신감과 아울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낸 성공적인 행사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공룡엑스포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평균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행사이다. 입장수입을 비롯한 행사장내 식당임대 및 부대 수입이 100억 이상 수익으로 흑자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족으로 행사 종료 후 다음 행사 결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견이 있다.

2013. 7월 (주)데일리리서치(서울소재) 실시한 전문기관 여론조사에 다수의 군민이 공룡엑스포가 고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향후 공룡엑스포 개최를 찬성하면서도 개선해야 될 점을 분명히 하였다.

〈표 5〉 설문조사 결과

항목	세부내용
표본 수	군민 1,000명, 도민 1,000명, 그 외 국민 1,000명
표본 추출 방법	지역, 성, 연령별 비례 할당 표본 추출
표본 오차	±3.1%p(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자동응답전화 조사[8문항, 통계질문 3문항 포함]
조사 설계 및 분석	(주)데일리리서치(서울시 소재)

대상	설문항목	문항①	문항②	문항③	문항④	문항⑤
군민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공룡엑스포 [56.7%]	소가야도읍지 [11.0%]	인물의 고장 [9.7%]	모르겠음 [22.6%]	
	엑스포가 도움이 되는 분야	전국적 인지도 [42.1%]	지역경제활성화 [10.6%]	군민 자부심 [8.1%]	관광상품 [13.1%]	도움 안됨 [26.1%]
	차기 행사개최 시 개선분야	입장권 예매 [23.0%]	지역경제활성화 [35.9%]	특정지역 편중 [20.0%]	예산 집중 투입 [13.0%]	행정력 집중 [8.1%]

대상	설문항목	문항①	문항②	문항③	문항④	문항⑤
도민	고성군 대표 이미지	공룡엑스포 [81.4%]	소가야 도읍지 [5.2%]	인물의 고장 [6.0%]	모르겠음 [7.4%]	
	공룡엑스포 지역발전 기여도	매우 도움 [35.1%]	대체로 도움 [49.9%]	별로 도움 안됨 [12.7%]	전혀 도움 안됨 [2.3%]	
	차기 행사 방문 의향	꼭 방문 [27.0%]	가능하면 방문 [47.3%]	가고 싶지 않음 [22.5%]	전혀 미 방문 [3.2%]	
국민	고성군 대표 이미지	공룡엑스포 [40.7%]	소가야 도읍지 [11.0%]	인물의 고장 [8.8%]	모르겠음 [39.5]	
	공룡엑스포 지역발전 기여도	매우 도움 [20.0%]	대체로 도움 [47.1%]	별로 도움 안됨 [24.3%]	전혀 도움 안됨 [8.6%]	
	차기 행사 방문 의향	꼭 방문 [14.5%]	가능하면 방문 [44.0%]	가고 싶지 않음 [32.9%]	전혀 미 방문 [8.6%]	

####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부족

고성군의 입장에서 네 번의 엑스포 행사를 수치상을 단순비교하면 순수 군비세출과 세입 수지 분석에서 공룡엑스포 사업정산 결과 군비지출보다도 수입의 고성군 세입이 많아 직접수입측면에서 흑자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나 엑스포 행사는 대외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나 행사장 부근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경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못하고 있고 특히 고성군의 인구, 영업시설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고성읍민의 기대 심리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상기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축제인 공룡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차기 행사시 개선분야가 **지역경제활성화(35.9%)**, 입장권 예매(23.0%), 특정지역 편중(200%), 예산집중투입(13.0%), 행정력집중(8.1%)순으로 고성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열악한 음식시설 및 숙박시설 부족

관람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행사장내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숙박시설의 평가에 달려 있다.

공룡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의 불만은 대부분 고성관내 식당내 불친절, 시설환경 및 음식의 질 문제, 숙박부족은 행사시마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성군에서 엑스포행사 개최전 친절서비스와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다지 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관람객은 가족단위로 펜션과 다인실을 갖춘 쾌적한 숙박시설을 선호하나.

고성관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2인실 러브호텔 청소년 출입 부적절한 시설로서 많은 관람객들이 인근 통영·거제 외부지역으로 숙박시설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행정에서는 숙박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숙박업소는 가족단위 숙박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 고성군 체류형 프로그램 부족

2007년 대회경제정책연구원의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성과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응답이 30.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여행 및 관광목적으로 12.1%, 공룡에 대한 관심 10.5%, 호기심이 생겨서 9.7%순으로 자녀 교육용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높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룡엑스포가 국내 자연사를 대표하는 엑스포로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공룡엑스포를 통해 교육적인 목적차원을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세계엑스포로 새로운 볼거리, 여행지로 부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룡 행사장내 프로그램에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 부족으로 고성관내 지역자원연계 부족으로 공룡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인근 통영, 거제, 사천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오히려 인근 지역의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V. 개선방안

### 1. 군민중심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구축

#### 1) 고성군 문화재단 설립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위해 시대적 상황을 맞춰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을 통하여 설립한 재단으로서 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자 등의 수익으로 그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재단에서 기획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명분이 있고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중앙집권적인 관의 계획적인 주도에 의해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성숙도가 높아져 천편일률적인 관주도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또한 관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들이 복잡다단한 사회의 틀에 더 이상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오히려 관의 개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제대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인 수는 적지만 향후 많은 자치단체가 재단 운영의 필요성을 알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엑스포 행사를 비롯해 크게 작은 행사프로젝트를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문화예술단체 지원등 제도적 장치 마련

과거 메세나는 첫째,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예술가 단체나 개인을 후원하는 ‘자선적 관점’에서, 둘째, 기업이 자신의 회사 홍보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협찬의 관점’으로, 세번째는 문화예술단체와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원하는 ‘문화 파트너십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메세나 패러다임의 변화는 메세나의 개념이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최근의 메세나는 기업은 새로운 문화주체로서 역할로 부상되어 오고 있고 기업회사 이미지 문화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재정적 후원 이외에 기업 내 직원복지공간을 연계해 문화예술인의 함께 하는 힐링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예술단체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마케팅, 기획등의 기업내 전문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할 있다.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연 시 로고 노출뿐만 아니라 노사화합 음악회, 기업임직원을 위한 대인관계 강화 교육,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한 교육, 기업 동호회를 위한 참여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경상남도는 사천에 있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바트-코리아와 메세나 협약을 맺고 해마다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경남도내 일부자치단체등도 예술인단체와 기업간에 메세나 협약을 하고 있다.

고성 오광대는 해마다 해외국제공연을 할 정도로 이름난 국가무형문화재단. 고성오광대 뿐만 아니라 고성농요등 고성관내 문화예술단체가 KAI 항공산업등 인근지역의 기업체와의 문화예술 활동 협약식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생존과 지위향상에 위한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받지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고 또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생력을 위한 지역내 메세나를 통하여 안정적

인 재정적 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 3)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예술정책 관심 제고

모든 지역대형사업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성패 여부는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인적·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추진하고 하는 행정의 역할과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만들어야 할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지자체는 힘써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부서 근무에 대한 경기도 안성시청 공무원의 기본 인식 조사결과, 유경험자의 경우 과반수 가까이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무경험자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보다 오히려 더 많은데다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4명중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일선공무원들의 이미지는 꼭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문화예술분야 근무는 선호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부서 근무에 따른 특별한 유인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삶의 질 만족’를 위해 지방자치 행정의 중심에 두고 문화예술분야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생활을 집약하는 총체적 상징이며 지역주민 개인의 태도와 사고까지 결정하는 밑그림이다. 그러므로 지역민이 선출한 민선단체장은 지역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 축제체험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 1) 지역축제에 지역자원 적극적 활용

공룡세계엑스포는 공룡을 주제로 공룡의 테마로 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간적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고성관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머물러 수 있는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이 필요가 있다.

또한 공룡엑스포는 주·야간 행사가 진행되어 있어 관내 숙박업소와 연계 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룡엑스포 행사장 방문객들을 위하여 지역문화관광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관광 전문회사와 연계하여 공룡엑스포를 겨냥한 축제관련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목표고객을 명확히 설정하여 생태자원, 문화유적, 교육 등 테마별로 그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고성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산과 들과 바다에 인접하고 있어 신선하고 다양한 농수축산물들이 생산되고,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생명환경 농·축산 시책 추진으로 안전한 식재료로도 손색이 없다. 다만 고성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부족한 편이다.

전국에서 이름 난 향토음식으로 지역축제를 찾는 미식가에 의해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 판매 매출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진 전주의 ‘전주비빔밥’, 통영 김밥과 꿀방, 진주 비빔밥, 냉면, 거제 멧게비빔밥, 마산 아귀찜, 사천 생선회 등 다양한 이름난 먹거리가 많고 음식에 스토리를 입혀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움과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대부분 관광객은 그 지역의 축제를 보러 왔다가 유명한 맛집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엑스포 이후 지역향토음식에 대한 관심도로 고성군에서는 고성한정식을 이어서 공룡도시락, 염소국밥등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시도해 왔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는 고성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인 가리비를 원료로 음식을 개발하여 관내 식당에 보급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은 걸어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하모회, 가을철 왕새우와 가리비, 봄철 도다리쭈국 등은 일부 미식가에 의해 알려 저 고성지역의 식당을 찾고 있다.

그 어떤 관광정책보다 향토 음식개발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고성군외식업지부와 고성향토음식연구회와 함께 우리지역고유의 특색을 지닌 음식 레시피 책자 발간한 바 있어 대중식이 있는 음식을 지역식당에 보급하여야 한다.

## 3) 농·산어촌 어메니티 활용

고성지역은 매년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만큼 친환경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친환경농업을 활용한 팜스테이 등 체험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공룡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고성지역은 자연환경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존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들로 인하여 도시민들의 안식처로서 손색이 없다. 도시민들의 직장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농어촌 체험활동으로 정서적인 휴식과 안정, 어린이들의 위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표 5〉 농어촌 체험마을 현황

명칭	위치	주요프로그램	비고
개천 무지돌이마을	개천면	농사체험, 천연먹거리, 천연재료 체험학습, 전통놀이	
대가 삼계체험 마을	대가면	농사체험, 짚공예체험, 모형곤충만들기	
송천참다래 정보화마을	하일면	참다래 따기, 잼만들기	
하일동화 어촌 체험마을	하일면	햇불체험, 갯벌체험	
수로요 보천도에 창조학교	구만면	도자기 체험	
옥천사 템플스테이	개천면	산사체험	
종생마을	대가면	농사체험, 힐링	
청광새들녘	대가면	물놀이, 농촌생태체험, 고택체험, 공예체험	

#### 4) 거제·통영 관광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민선7기 군수취임이후 고성·통영·거제 행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3개시·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바다환경자원과 역사,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 3개시군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저마다 지역축제 테마가 다르게 열린다.

고성군은 공룡을 테마로, 통영시는 여러 주제로 행사를 하고 있으나 윤이상등 훌륭한 음악가가 배출되어 음악을 주제로 하고 있고 거제시는 해금강중심의 바다를 주제로 행사를 하고 있다. 다소 고성지역은 축제 행사수는 부족할지 몰라도 어린이를 주타겟으로 하는 공룡엑스포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다.

따라서 3개 시군이 축제시 함께 묶을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2박3일이상의 여행객들이 고성에서 공룡을 보고 통영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해금강 유람선 관광을 하는 시·군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선도형 관광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하나투어를 비롯한 전문 관광회사와의 협약과

외식업지부 대표, 숙박협회 대표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지역자원 투어 프로그램 개발

지역축제는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더불어 함께 하는 일체감 형성과 지역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고유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대외이미지 제고 기능과 지역의 자연 및 문화예술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기능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축제는 타지역민을 우리지역현장으로 불러 모음으로써 축제행사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시켜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축제기간동안 지역의 모든 자연 및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다시 관광객을 불러드리는 장소로서 강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지역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성에서 선점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자연 및 문화자원인 상쾌이, 공룡, 소가야 유적지, 농산·어촌 어메니티 등 수많은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묶어 1박2일, 2박3일 고성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4. 공룡엑스포 운영방향 개선

#### 1) 군민중심의 행사 운영

여태까지 네 번의 공룡엑스포 행사가 (재)공룡엑스포 조직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형식으로 지원받아 행사를 직접 계획하여 왔다. 따라서 행사기간 장기화로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나아가 군민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여론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으로 행사후 엑스포 행사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공룡엑스포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는 첫째가 행사기획부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 주도적으로 모든 행사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아 행사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행사 입안, 예산확보, 주민참여방안등 사소한 것 까지 군민들과 마주 앉아 토론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대형행사일수록 행사물품을 공사는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식당등 영업시설 종사자, 진행요원, 도우미등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의 특산물 홍보와 판매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의 공룡엑스포를 행사기간중 관람객을 위하여 행사장 입구에 고성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 바 있고 2016공룡엑스포 기간중 71백만원 정도의 매출수입

을 올렸다. 이후 공룡쇼핑몰 손님으로 이어져 매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룡인프라가 잘 갖춰진 행사장을 활용하여 기존의 3년마다 하는 행사를 매년 정례행사를 추진하여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공무원파견 직원으로 운영하는 공룡엑스포를 전문가 조직인 향후 설립될 (가칭)고성문화재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2) 고성읍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

공룡엑스포 행사는 주행사장인 당항포가 위치한 회화면 일원과 공룡발자국 화석지와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박물관이 있는 하이면 일원 행사장은 고성군의 북서부와 남동부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고성 전지역의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네 번의 엑스포 행사에도 그 외의 지역에는 크게 뚜렷한 변화가 없다.

특히 고성군민의 인구 및 자영업자가 밀집된 고성군의 중심인 고성읍에서는 엑스포 행사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상권이 어렵다 라고 할 정도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공룡엑스포 행사기간중 고성읍으로 유인할 수 많은 아이디어와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관람객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소가야고분군, 남산과 이어지는 해지개 다리 야간행사, 재래시장 복개천 먹거리 촌 운영, 고성광장 버스킹 공연등 관람객들이 볼거리 먹거리로 고성읍으로 유인하여 숙박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의 지역 자원인 하일 학동 고택, 마암 장산숲, 천연고찰인 상리문수암, 개천옥천사 산사 체험, 제정구 커뮤니티 센터와 자연환경이 우수한 농·어촌체험시설 연계하여 관광객이 스쳐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즐기고 힐링하고 체험하며 머물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론

지역축제를 관람하는 방문객은 행사 프로그램만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관람객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맛집을 통해 고유한 음식을 먹고, 지역특산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시간나면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다.

사실 그 지역축제 프로그램만을 관람하고 돌아 가는 방문객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숙박하지 않는다. 따라서 축제현장은 그들이 거쳐 가는 간이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축제관람을 위해 지역을 찾아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비롯한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소중한 지역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더 높이는 지역을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축제와 지역에 산재한 있는 각종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룡엑스포 행사의 경우, 고성군 그 인근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연문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발전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역 축제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관람객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기억속에 남을 만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축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 및 지역축제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고성 지역 친환경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지역향토음식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축산업과 연계 발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체험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고성지역은 특성상 농·어촌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또한 이러한 농촌을 활용한 팜스테이를 통한 농가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농촌 프로그램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람객의 호응이 높은 야간 불빛 및 레이저쇼등 프로그램에 맞춰 지역내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고성지역의 자연생태계, 해양레저·휴양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나 관광객이 머물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숙박 등의 시설과 그밖의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다. 야간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호텔의 건립과 근거리내의 리조트·유스호스텔이나 고성지역의 특색을 갖춘 펜션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의 공룡엑스포 행사가 3년 간격이라는 개최주기와, 공무원 위주의 조직위원회구성, 고성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후에 수입금을 반납하는 정산구조, 주요 고객인 어린이 인구 감소, 행사기간의 장기화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외부환경변화에 영향등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

다.

지역축제인 공룡엑스포 행사는 주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는 공룡엑스를 개최하면서 기반시설이 대부분 정비되어 있고 상시축제와 이벤트가 있는 공룡테마파크로 발전되어 있어. 공룡엑스포의 행사는 향후 대부분 공무원의 파견을 받은 재단법인 공룡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야 하겠다.

종합적으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 및 지역상품개발과,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한 관광화 전략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문화마인드 확립을 위한 군민참여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문화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한국지역경제학회(2007).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16고성공룡엑스포 백서(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성과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이진형(2008). 문화인프라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전략  
김상호(2006).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략 방안연구  
김희숙(2010). 지역자원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축제 발전방안(진주남감유등축를 중심으로)  
고성군 내부분건

### 홈페이지

학술연구정부서비스 ([www.riss.kr](http://www.riss.kr))  
경남고성군청 홈페이지([www.goseng.go.kr](http://www.goseng.go.kr))  
거제시청 홈페이지 ([www.geoje.go.kr](http://www.geoje.go.kr))  
통영시청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http://www.tongyeong.go.kr))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 ([www.visitkorea.or.kr](http://www.visitkorea.or.kr))